



두번째 이야기

사랑하는 선교사님께

[뜻대를 향하여① 미주1]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박은형** 선교사님!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는 바닷물이 칠랑대는 부산의 땅끝에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19년 전 그 교회에서

박은형 선교사님의 파송 예배에 윤현덕 장로님과 함께 축하하러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은 그 뒤 19년을 네팔의 험한 산들 속의 오지와 비가 오면 흙이 뚝반죽같이 되어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케냐의 길을 다니면서 BEE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사역을 확장 시켜나갔습니다. 네팔과 케냐의 사역자들이 서로의 소식을 듣고 서로 경합이라도 하는 듯 발전해 나가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케냐에 갔다가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박 선교사님은 네팔로 사역하러 가시는 길이었어서 둘이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뉴스에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그래도 가시겠냐고 물었더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약속되어 있어서 가야 한다고 네팔행 비행기 탑승구 쪽으로 가시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속으로 주님만을 부르며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팔의 공항이 폐쇄되어 그날은 못 가셨지만 이를 후에 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지요.

우리가 편하고 익숙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선교사님은 담대하게 힘써 지키고 계십니다.

남미의 여러 나라에도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일에도 뜨거운 말씀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곳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은 기쁨에 더욱 힘이 납니다.

중보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네팔, 케냐, 남미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넘치게 흘러가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박은형 선교사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안전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정진희 권사 드림



사랑하는 **류재문, 김해진** 선교사님!



새해 들어 미주1 기도테이블에 새롭게 속하게 된 저희는 선교사님 부부를 가깝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서지만 두 분의 환한 미소가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과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A국의 힘든 상황에도 많은 수고와 기도로 그 땅에 씨 뿌리신 시간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잘 알 수 없어도 주님은 두 분의 노고와 눈물의 기도를 모두 아시고 그 시간을 귀한 밑거름으로 사용하셨으며, 이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보시며 열매 맺기를 기다리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 새롭게 이루어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귀한 안식도 주시고, 거주지를 옮기는 일들과 아드님의 결혼 등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헌신과 마음에 가득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보시고 주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맞추어 두 분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두 분을 통해 많은 분들이 배우고 준비되어, 중남미 땅으로 나아갈 사역자들이 나오기까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빕니다. 일대일과 BEE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과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 분께 가득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새롭게 이사할 곳 근처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사역지를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따님과 아드님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 선교사님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영혼이 만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그 복이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빕니다. 두 분의 환한 미소 가득한 얼굴을 오래도록 볼 수 있겠지요?

저희가 마음 모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늘나라의 기쁨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즐겁고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부부를 응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성애 권사 드림



남관우 선교사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일을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시고, 한국의 모든 고토의 삶을 접으시고 주님께

삶을 드려, 참으로 머나먼 땅 과테말라까지 날아가셔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 오셨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선교사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며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미주1 테이블에 온 지 지난 2개월 동안 이름만 듣고 기도하던 선교사님의 모습을 줌으로 처음 뵈고,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눠주신 것을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선교사님의 마음고생에 함께 마음이 아파하며 건강을 염려하며 더 기도하게 되네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사역에서 앞서가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을 따라 기도로 힘써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여러 환경과 기후,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힘있게 사역하시기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선교사님과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김정숙 권사 드림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선한 사마리아인

(빈센트 반 고흐, 73x60 캔버스 유채, 네덜란드 오셀로 크렐러 뮐러 미술관)

외젠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창조적으로 모사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36세에 세상을 떠난 고흐가 인생의 말년에 요양원에서 지내며 그린 그림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목사였던 그는 목회자, 전도자의 삶을 꿈꾸었지만 그의 진로는 가로막혔다. 그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의 의도는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했다. 그림의 배경으로 처리된 인물들과 색감은 이해받지 못한 고흐의 고독한 삶과 좌절과 낙담을 반영하는 듯하다. 고흐는 본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의 심정이었을지도 모른다.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풋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하합니다.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3월 9일(수) 김성주 선교사가 있는 브라질로 정진영 선교사와 은찬이가 떠납니다. 브라질 생활에 잘 적응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선교사님 가정에 주신 선교 사명을 기쁨으로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2022년도 상반기 OBA와 심화 과정이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을 견고케 하는 세미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2-1 상반기 OBA(온비아), 심화 과정					
	월	화	목	토	주일
오전	온라인 갈라디아서 3/7~4/25	온라인 그분이 지으신 마음 3/8~5/10		온라인 갈라디아서 3/5~4/23	
	온라인 그삶 3/7~5/23			온라인 그삶 3/12~5/28	
	온라인 갈라디아서 3/7~4/25		온라인 갈라디아서 3/10~4/28		온라인 갈라디아서 3/6~4/24
오후	온라인 교회사1 3/7~5/2				온라인 교회론 3/13~5/15
	온라인 그삶 3/7~5/23	온라인 그삶 3/8~5/24			온라인 그삶 3/13~5/29